

46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Chapter

삼상 8장, 신 17:14~20

은혜찬송 77장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97장 (예수 우리 왕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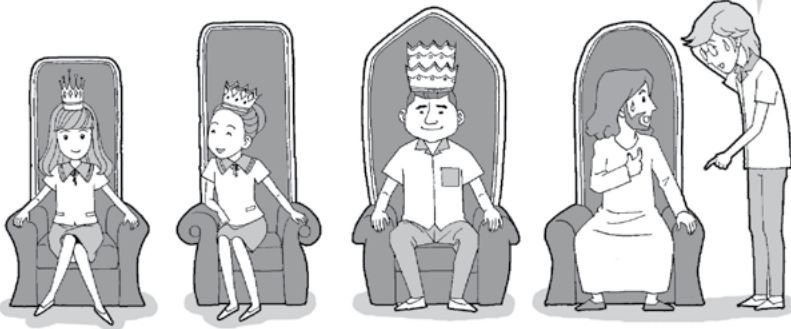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와 그 문제점을 압니다.
2. 범사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해야 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내 마음속을 살펴 봅시다.

나의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있나요?



말씀을 이해하기

여호수아 이후 약 350여 년간 이스라엘은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으며 전쟁시에는 지도자로서 장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형태는 신정 정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왕정정치를 했던 주변 나라들의 제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정정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전쟁 때 왕이 직접 군대를 통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로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었다는 점과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그릇되게 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으며,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섬겼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훗날 그들이 요구한 왕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눅 19:38)

saying: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Lk 19:38)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렘 2:17~19)

(호 13:9~11)

(삼상 12:20~22)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신명기 17장 14~20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을 구한 것이 왜 잘못이 될까요?
2.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 왕이 된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른 점은 결국 무엇입니까?
5.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육신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실패와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잠언 3장 5~7절을 찾아 기록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내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놓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예'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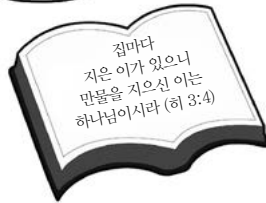
우리들의 이야기

성경과 철학

1. 아름다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는 자연이 아마 신일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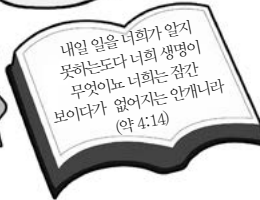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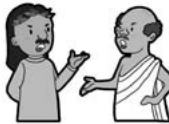
그 신은 아마 자연만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간 것 같소.



2.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존귀한 존재네! 부질없는 욕망은 필요없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현자가 되어야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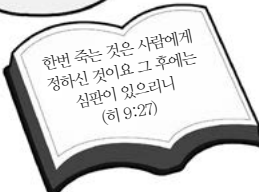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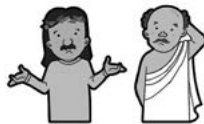
사람은 한번 태어나 즐겁게 살다가면 그만이요!



3. 죽음 이후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그럼,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그건 나도 모르겠네. 죽으면 끝이 아닐까?



내 마음 속의 보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좌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보좌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세 가지 영적 상태 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연인 혹은 육에 속한 사람(고전 2:14, 유 1:19)’은 마음 속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고, 자기가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삶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일지라도 통제 불능의 좌절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연인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좌에 앉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자리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 자신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과 세상에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모든 삶의 영역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셋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고전 3:1, 3)’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따라’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만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은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보다 내 자신이 보좌에 앉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속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삶의 영역과 우선순위들은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는 더욱 많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